

인쇄하기

인쇄하기

창닫기

한국영농신문

www.youngnong.co.kr

HOME 네트워크 지방

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, '안전·품질·청렴도' 끌어 올린다

김도윤 기자

승인 2026.03.06 23:24



‘안전결의대회 및 안전·품질·청렴 특별교육’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[사진=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]

[한국영농신문 김도윤 기자]

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(단장 박형수)은 5일 대회의실에서 공사감독, 현장대리인, 안전관리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안전결의대회 및 안전·품질·청렴 특별교육’을 실시했다.

이번 행사는 사업단 전 직원 및 현장관계자들의 재해예방 경각심을 높이고, 2026년도 재해율 0% 달성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.

영산강사업단에 따르면, 이번 특별교육은 ▲안전관리 중점관리 분야 관련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▲공사현장의 재해발생 사례 교육 등을 통해 안전·품질·청렴도를 끌어 올리는데 중점을 두었다.

또한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산업재해 예방및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선서했다.

이어 청렴이행 각서 교환식 및 청렴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한편 각 건설현장에서의 부패예방과 고충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
박형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은 “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”을 강조하면서, “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에 공사와 현장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김도윤 기자 nh9669@daum.net

<저작권자 © 한국영농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